

## 문명사적 전환과 대학의 대응



양형일  
조선대 총장

우리 사회에서 '대학의 위기, 대학의 개혁' 등과 같은 말이 중요한 화두가 된 지도 제법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새 천년의 출발점이자 21세기의 도입구에 들어서면서 '대학'이라는 화두는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급속한 과학 기술의 혁명(STR)과 거세게 밀려오는 세계화·정보화의 추세, 학문의 눈부신 발전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과 입학 지원자의 급감, 교육내용의 변화, 서비스의 향상에 대한 교육 수요자들의 욕구 증대 등과 같은 내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외적 요인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대학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와 개혁 작업들이 모든 대학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특성화, 학부제, 연봉제, 업적 평가, 구조조정, 경영마인드' 등의 단어들이 대학사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인격을 도야하던 대학에서 '실용과 벤처'가 중시되는 대학으로 변해 가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정 학문 분야에만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이나 기초학문, 그리고 비인기학과와 전공의 위축과 소멸 등은 대학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계량적 측면에 치중한 평가들이 과연 강의나 연구 수준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현실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지나치게 실용성 위주로 구성된 교육과정이 과연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들을 양성하는 대학의 본령에 맞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급속하게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는 이전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대가 대립적, 폐쇄적, 수직적, 집단적 가치 체계나 세계관에 의해 이끌려 왔다면, 이제는 상생(相生)적, 개방적, 수평적, 다원적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 입

각한 패러다임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대학은 이제 다양성과 개성을 추구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인재들을 양성해야 하고, 세계와 지역, 인류와 민족을 함께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시각을 지닌 인재를 배출해야만 합니다.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간에 향후 세계가 지식과 정보에 의해 주도되는 현상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지역의 핵심적 지식과 정보를 결집하고 생산하는 대학에게 더 많은 중요성과 역할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위기는 바로 이러한 중요성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현재의 대학이 축적하고 있지 못한 데서 기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가 한 생활권으로 묶여 가는 추세인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느 곳보다도 대학이 먼저 이러한 기준과 수준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책임도 막중합니다. 민족이나 국가 간의 경쟁과 보장이 함께 추구되면서, 세계적 보편성과 지역적·민족적 특수성이 경쟁 속에서 결합하는 시대의 최전방에 대학이 서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로 '국가 경쟁력은 대학 경쟁력에서'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경쟁력은 '정보, 지식, 문화'로부터 창출될 거라고 모두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농장(農場)이나 목장(牧場)에서 공장(工場)으로' 활동무대를 옮기며 생존하고 역사를 창조해왔다면, 이제는 '공장에서 뇌장(腦場), 심장(心場)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냉철한 이성과 풍부한 감성이 한차원 상승한 창의적 결합을 시대는 요구하고 있고,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대학입니다.

지금 이순간 문명사적 전환의 격랑에 대학은 휩쓸려 있고, 이 격랑을 대학이 앞서서 헤쳐나가야 하는 임무를 안고 있습니다. 근현대사에 있어서 민족의 독립, 이데올로기의 대립, 경제적 변영, 민주사회의 완성 등과 같은 과제가 대두되었을 때, 대학은 이러한 역사적·민족적 명제를 충실히 수행해 나갔었습니다.

이제는 '세계화·정보화·지식사회'라는 새로운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학이 이러한 과제를 충실히 해결해나갈 때, 우리 민족의 미래는 밝을 것이며 대학은 민족과 사회의 신뢰와 애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변화와 창조를 통해 대학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는 속에서 문명사적 전환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창의적, 전략적,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을 확립하여 대학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박**